

순천 '대학로 청춘길' 조성 오늘 열림식

사고 놀고 팔장... '고고장' 오세요

순천시에도 서울 대학로처럼 문화가 어우러진 대학로의 거리가 있다. 시는 순천 대학로를 대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닌 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있다.

순천대 인근 상가 중심 10월까지 운영 프리마켓·길거리 미술관·공연 등 풍성 상인·학생 문화거리 만들어 상권 활성화



17일 '대학로 청춘길' 열림식을 앞두고 청년 활동가들이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바닥을 꾸미고 있다.

순천시에도 서울 대학로처럼 문화가 어우러진 대학로의 거리가 있다. 시는 순천 대학로를 대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닌 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청년 활동가가 주체가 돼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 디자인을 통한 대학로만의 독특한 거리를 만들어 프리마켓·공연·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KT 석현빌딩앞 인도 바닥에는 '꿈꾸라! 뛰 어라! 청춘애!'라는 문구를 재미있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만들어 그려 넣는다. '순천 대학로', '돌고래의 꿈' 등 청년의 꿈을 펼치는 공간을 의미하는 조형물도 곳곳에 설치한다.

대학로 청춘길에는 17일 열림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1회 주제를 변경해 '고고장'을 운영한다.

고고장은 '사고 놀고 팔장'의 줄임말로 프리마켓과 공연, 전시, 놀이존으로 구성된 문화 프로그램이다.

고고장은 1월부터 공공디자인, 스토리텔링, 도심관광, 조형물, 사진,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대학로를 탐방하고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프리마켓은 전문 셀러, 학생, 지역 청년사업가, 일반 주민 등 30팀의 셀러를 모집했으며, 셀러들은 자신만의 창작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장이다. 관람객들은 특별한 물건과 사람을 만나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위해 인근 상점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제한하여 먹을거리 장터 및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후두둑 카페 앞에서 운영되는 '길거리 미술관'은 주제를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의 주제는 '여행의 기억'으로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 모형을 제작된 길거리극장은 단편영화나 동영상 등을 상영한다.

또 매월 3팀의 버스커를 불러 길거리 공연도 연다.

순천 대학로에서 젊음을 '만끽' = 17일 열림식은 지역 청년활동가들이 학생, 상가변영회와 함께 대학로 캠퍼스에 벽화를 그리며 시작된다.

열림식에는 흥대 '술가와 이란' 인디 밴드, 지역 버스커 '달빛 거지들' 순천대 밴드의 '석공' 등이 참여하고 여행의 기억을 주제로 한 길거리 미술관이 운영된다. 마술공연, 퀴즈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곁들여진다.

이 밖에도 대학로만의 랜드마크가 될 카메라 모양의 길거리극장도 첫 공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열림식을 시작으로 대학로 청춘길에서 청년 문화가 육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장이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대학로 청춘길 프

젝트 참여자를 공공디자인과 스토리텔링, 공연 기획, 공예, 도심관광, 순천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또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길거리 미술관, 프리마켓 등 프로그램 개발과 순천 대학로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모았다.

지난 8일에는 대학로 상인회와 학생, 순천대학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 순천대 앞 상가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학로 상가변영회를 구성했다.

대학로 상가변영회에서는 마을학교 운영, 대학로 정화활동, 음식맛 개선, 꽃화분 나눔기, 대학생·활동가와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매월 '고고장'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프리마켓과 체험 부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대학로 청춘길" 조성으로 순천에 대학로 문화가 생겨나고 상인과 학생, 활동가들이 협업해 만든 거리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박선천기자 ejkim@

순천시 8월부터 전남 첫 푸드트럭 운영

오는 8월경부터 전남에서 처음으로 순천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푸드트럭 입지 조사 결과 순천으로 결정하고,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팔마체육관, 조례호수공원, 순천만 중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순천만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푸드트럭 사업자를 선정 한 뒤 오는 8월경부터 영업을 하도록 할 방

참이다. 도와 순천시는 기존 음식점 등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선 푸드트럭 한 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푸드트럭은 현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시공원, 체육 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입이 가능하다.

도는 푸드트럭 영업 효과를 보고 장소와 트럭 대수를 늘릴지를 결정한다.

푸드트럭은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종의 '길거리 포장마차'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받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순천교육청 전남과학전람회 2년 연속 최우수

특상 3팀 등 7팀 수상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수)이 최근 전남도 과학교육원 주관의 2015년 제61회 전남 과학전람회에서 특상(3팀), 우수상(1팀), 장려상(3팀)을 휩쓸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지원청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과학전람회에서 3팀(순천 성남초·순천 용당초, 순천 왕운초, 순천 왕운중)이 특상을 수상해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됐다.

순천 성남초 김은수·윤지혜, 순천 용당초 김찬형(지도교사 김진선) 학생은 '사위질병의 앞자루 감기에 관한 탐구'

작품을 연구했고, 순천 왕운초 김도현·이석준(지도교사 오원수) 학생은 '예쁜 줄무늬 꼬마새우의 물고기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 탐구했다.

순천 왕운중 김민석(지도교사 김민성) 학생은 '봄과 가을에 활동하는 썩구 개미의 생존전략에는 어떤 과학적 지체가 있을까?'에 대해 1년여 기간 동안 깊이 탐구해 호평을 받았다.

신경수 교육장은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2년 연속 과학교육의 선두 주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최될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삼산동 통장단협의회 네팔 이주여성 친정돕기 '훈훈'



순천시 삼산동 통장단협의회(회장 박말레, 이하 협의회)는 대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주여성 친정 가족 돕기에 나서는 등 나눔사랑을 펼쳤다.

협의회는 최근 두 번의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네팔 이주여성 고향의 피해 복구비로 성금 80만원을 지원하고 위로 격려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지진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순천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전달돼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공직자들은 심각한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지난달 성금 1만2300달러를 구호단체에 기탁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60주년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 & 시상식

일시 2015. 6. 27(토) 오후1시 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예술공나무들의 발표회! 무료 관람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60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입니다.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